ITU-T TSAG 국제회의

염흥열 ITU-T TSAG 수석대표,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김기훈 TTA 표준화본부 책임
이민아 TTA 표준화본부 선임

1. 머리말

ITU-T TSAG(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전기통신자문반)은 ITU-T의 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ITU-T A 시리즈 권고(Recommendation) 등에 정의되어 있는 작업 방법 및 ITU-T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과 ITU-T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내외부 협력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2017년 5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번 TSAG 회의에는 40여 개국 15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3명의 국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는 2016년 10월에 개최된 WTSA-16[1] 이후 첫 번째 회의로서, 신규 회기(2017-2020) 라포처그룹을 재구성하고 의장단을 선임하였으며, 그 외 신규 포커스그룹[2] 설립 등을 논의하였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연구반 구조개편

금번 TSAG 회의는 지난 2016년 개최된 WTSA 회의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회의로서, 이에 따라 신규 회기(2017-2020) TSAG 라포처그룹을 재구성하고 각 그룹의 의장단을 선임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결정된 TSAG 라포처그룹과 의장단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년과 달리 라포처그룹 회의가 순차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동시에 두 개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대표단 수가 적은 일부 개도국에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라포처그룹 축소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 전까지 현 라포처그룹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차기 회의 시 향후 TSAG 활동을 위한 최적의 구조로 다시 개편키로 결정하였다.

1) 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2) 포커스그룹(FG, Focus Group): 특정 이슈에 대해 ITU-T 연구반의 활동을 돕고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장려 및 해당 이슈 연구를 위해 설립되는 그룹으로, ITU 국가회원(Member State), 부문회원(Sector Member), 준회원(Associate), 개인(개인이 속한 국가가 ITU 멤버인 경우, 표준개발기구 회원 포함) 모두 참여 가능

<표 1> TSAG 라포처그룹과 의장단 현황

라포처 그룹	의장단
협력강화(Strengthening Collaboration)	Mr Glenn Parsons(캐나다, 에릭슨)
전략 및 운영 계획(Strategic and Operational Plan)	Mr Victor Martinez Vanegas(멕시코)
작업 방법(Working Methods)	Mr Steve Trowbridge(미국, 노키아)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Mr Reiner Liebler(독일)
표준화 전략(Standardization Strategy)	의장 지정없이 순차적으로 의장 수임 Mr Yoichi Maeda(일본) Ms Judy Zhu(중국, 알리바바) Mr Didier Berthoumieux(프랑스, 알카텔) Ms Rim Belhassine-Cherif(튀니지, 튀니지 텔레콤) Mr Vasily Dolmatov(러시아) Mr Stephen Hayes(미국, 에릭슨) Mr David Ward(미국, 노키아)

2.2 신규 포커스그룹 신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개의 포커스그룹 신설 제안이 있었다. 먼저 지난 3월에 개최된 SG17(정보보호)에서는 TSAG 산하에 블록체인 포커스그룹 설립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문서를 승인하여 TSAG으로 송부하였고, 또한 한국은 SG17 제안을 지지하면서 동 그룹의 업무 영역(ToR)을 제안하는 기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기업 eCurrency와 세네갈, 르완다 등의 일부 아프리카/아랍 국가들은 공동기고서를 통해 디지털법정화폐(DFC, Digital Fiat Currency) 기술 사용에 있어 상호운용성, 규제적합성, 보안 등을 다루는 디지털법정화폐 포커스그룹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에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DFC는 특정 솔루션의 명칭이므로 포커스그룹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법정화폐는 ITU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또한, 블록체인포커스그룹은 보다 일반화된 기술명, 즉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로 변경할 것과 디지털법정화폐 부분을 포함하여 하나의 포커스그룹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 이집트, 케냐 등은 모바일머니 및 디지털파이낸스 서비스가 많은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금융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디지털법정화폐 관련 포커스그룹 설립을 적극 지지하였다. 또한, 동 포커스그룹은 디지털법정화폐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닌 디지털법정화폐 구현을 위한 상호운용성, 보안, 네트워크 측면의 기술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ITU의 업무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오랜 논의를 거쳐 두 포커스그룹의 응용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독립적인 두 개의 포커스그룹을 신설키로 하고, 각각의 그룹명은 'FG on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FG DLT)' 및 'FG on Digital Currency including Digital Fiat Currency(FG DFC)'로 결정하였다. 의장은 FG DLT의 경우 스위스(Swisscom)의 Mr. David Waltrin으로, FG DFC는 eCurrency의 Mr. David Wen)으로 각각 선임하고 부의장은 향후 첫 번째 포커스그룹을 개최하여 결정키로 하였다.

2.3 빅데이터 리드그룹(lead group)

ITU-T는 복수의 연구반이 관련된 연구 분야의 경우 하나의 연구반을 리드그룹으로 지정하여 다른 연구반과의 협의, 연구의 조정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리드그룹의 지정은 WTSA 또는 TSAG의 권한이며, 지난 WTSA-16에서는 빅데

이터 분야의 리드그룹 지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별도 리드그룹을 지정하지 않고 연구반별로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이슈를 다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2월에 개최된 SG13에서는 SG13이 빅데이터 리드그룹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TSAG에 빅데이터 리드그룹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문서를 승인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2017년 3월에 개최된 SG20 회의에서는 TSAG에 빅데이터 리드그룹을 지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연락문서를 승인하였다.

본 회의에서 SG13 의장(스위스)은 SG13이 대부분의 빅데이터 이슈를 다루고 있고, 빅데이터 이슈 조정 및 외부 컨택(Contact)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리드 그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SG20 의장(UAE)은 리드그룹을 지정하지 않은 WTSA-16 결정을 따라야 하고, 리드그룹 지정 없이도 관련 표준화 작업이 추진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최종 논의 결과, SG13 의장(스위스) 외에 리드그룹 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지 의견이 없어 WTSA-16 결정대로 빅데이터 리드그룹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4 기타

러시아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관련 ITU-T 연구반 및 각국의 제안을 고려하고, 이사회 ITR 전문가그룹(EG-ITR)에 보낼 TSB 국장보고서 초안 준비를 위해 TSAG 연락그룹 설립을 제안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이 EG-ITR 작업과 중복될 수 있는 별도 그룹 설립에 반대함에 따라, 별도의 그룹을 만들지 않고 TSB 국장보고서 개발을 위한 정보를 각 연구반이 TSB에 제공하도록 요청키로 결정하였다.

오픈소스 관련, 전차 회의부터 TSAG에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픈소스 정의,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표준 개발 절차 및 IPR 정책 등 협력관계 구축 전에 검토해야 할 이슈들이 있음에 공감하고 각 연구반에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 현황 정보를 요청하고, TSB 국장 IPR 애드혹 그룹을 통해 오픈소스 커뮤니티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3. 맺음말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블록체인 포커스그룹이 2017년 10월 첫 회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또한 8월 말에 개최되는 SG17 회의에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관련 신규 연구과제 및 작업아이템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ITU연구위원회 SG17 국내연구반은 지식재산전략원과 함께 국내 블록체인 관련 특허 보유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특허를 가진 기업/기관의 표준화 참여를 통해 ITU에서의 표준특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의 관련 전문가를 ITU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표준특허 선점과 블록체인 국제표준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

또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특별한 입장이 없으나 향후 파급효과가 큰 이슈인 만큼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차기 TSAG 회의는 2018년 1월 22일~26일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